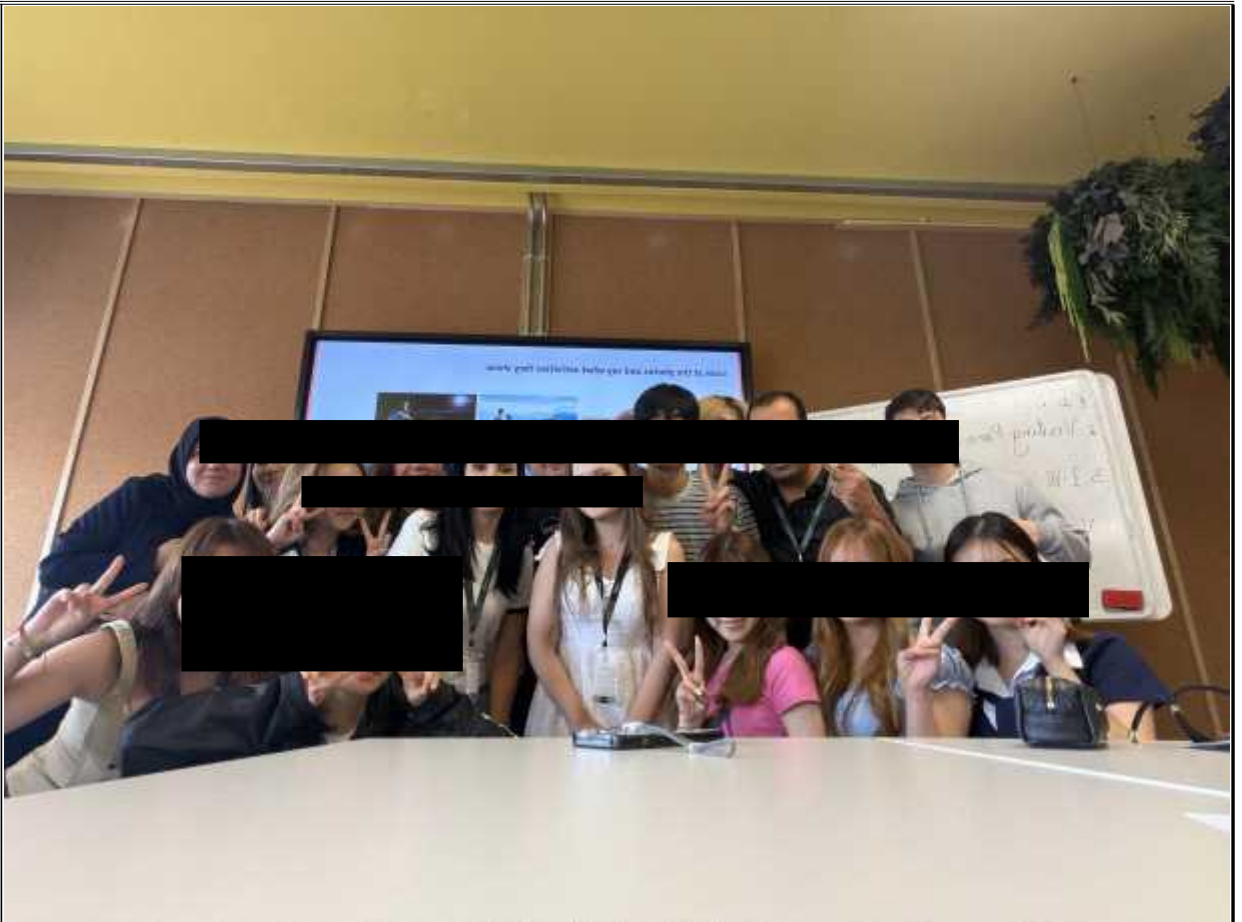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학교명	리젠츠대학
	파견 시기	[2026]학년도 [하계계절]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Intensive English		language skills, particularly listening and speaking
체험수기	I.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파견 대학은 리젠츠 대학교이다. 영국 런던 중심부의 리젠츠 파크 내부에 위치한 대학교이다. 2. 파견 전 절차 학교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청 후 합격하면 프로그램 담당자와 함께 상의 후 수업을 고를 수 있다. 중간에 리젠츠 대학교와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 나의 영어 레벨을 확정한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의 후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1차 잔금, 2차 잔금을 나눠 지불하게 된다.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숙사를 선택하였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사용한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김경숙 담장자, 영어연수부, 010-7770-6982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Intensive English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이번 체험학습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Speaking 시간이 풍부하게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오후 수업의 경우, 교재 위주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옆자리의 친구 및 선생님과 자율적인 프리토킹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 영어 회화 실력을 단기간에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던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출국 전 제 영어 실력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부분은 Listening 영역이었습니다. 현지 도착 초기에는 낯선 환경과 빠른 영어 발음 때문에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1주일 정도 지나면서 매일 영어에 노출되다 보니 점차 귀가 트이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한 24시간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면서 머릿속으로 항상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표현하려는 습관이 생겼고, 이는 실전 영어 회화 및 순발력을 키우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 외에도 개인적인 어휘 및 문법 공부를 조금 더 병행했더라면 훨씬 더 완성도 높고 짜임새 있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향후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현지 대학교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며 그들만의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콘텐츠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체화'였습니다. 미드, 영화, 스탠드업 코미디 등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영문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면서 유용한 문장 구조와 표현을 통째로 암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지속하면, 추후 실제 영어로 대화할 때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즉각적으로 떠올라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이 학습법을 적용하여 영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계획입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영국 입국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물품은 신분 및 체류 자격을 증명할 서류였습니다. 여권과 함께 입국 허가서, 단기 연수 증명서, 여행자 보험 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지참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영국의 전원 플러그 규격(3핀, BF형)이 한국과 다르므로 전용 어댑터와 멀티탭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NHS(국가보건서비스) 이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진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개인 상비약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현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제 수단의 경우, 최근 영국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해외 결제 수수료가 저렴한 트래블 전용 체크카드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비상용 현금은 소액만 환전하여 입국했습니다.

현지 물가는 런던 중심가(Zone 1)에 위치한 대학교 특성상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비싸 일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경우 약 15~25파운드(한화 약 2만 6천 원~4만 4천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여 외식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테스코(Tesco)나 세인즈버리(Sainsbury's) 같은 현지 대형 마트의 식재료(육류, 과일, 빵, 우유 등)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골통, 통신 등)

식사의 경우 평일 점심에는 캠퍼스 내에 위치한 학생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교통 편의성의 경우 리젠츠 대학교가 런던 1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런던 도심의 주요 명소와 미술관, 박물관 등이 대부분 도보권이나 버스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통 이용이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통신사인 eSIM을 개통하여 이용하였으며, 월 10~15파운드 내외의 저렴한 요금제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금융 및 의료의 경우 단기 체류 특성상 현지 은행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해외 겸용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으며, 건강 이상 시에는 입국 시 챙겨온 상비약을 일차적으로 복용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수업 외 여가 시간 및 주말에는 런던이 가진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부분 입장료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국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 등을 방문하여 예술품과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가 아름다운 리젠츠 파크 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는 큰 장점을 누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피크닉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고, 가까운 프림로즈 힐에 올라 런던 시내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웨스트엔드지역을 찾아 학생 할인이나 데이티켓을 활용해 정통 뮤지컬을 관람하였으며, 빅벤, 타워브리지,

버킹엄 궁전 등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와 주말 마켓을 탐방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구분	세부 항목	소요 비용 (GBP / £)	원화 환산액 (KRW / ₩)	비고
사전 및 참가 비용	항공권 (왕복)	-	₩1,900,000	왕복 직항/경유
	프로그램 참가비 (수강료/수속비)	£3,965	₩6,938,750	£2,175 + £1,790
	여행자 보험 및 준비금	-	₩100,000	단기 체류 보험
현지 생활비	주거비 (기숙사 / 플랫)	£1,100	₩1,925,000	Zone 1~2 기준
	식비 (100% 외식 기준)	£680	₩1,190,000	전 일정 외식/카페
	교통비 (지하철/버스)	£160	₩280,000	Oyster / Contactless
	통신비 (유심 요금제)	£20	₩35,000	데이터 요금제
	여가 및 문화체험비	£360	₩630,000	뮤지컬, 여행, 쇼핑
합계 (총 소요 경비)		£6,285	₩12,998,750	약 1,300만원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단순한 해외 여행이나 관광에 그치지 않고, 현지 대학교 수업 및 생활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강의실 안팎에서 친구들과 함께 런던 곳곳을 탐방하고, 각자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실전 영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졌으며, 글로벌한 환경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우선 이번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국제적 감각과 향상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본 전공인 환경공학 학업에 더욱 진지하게 매진할 계획입니다.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런던에서의 체류 경험은 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향후 전공 역량을 충분히 쌓은 뒤, 기회가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 및 글로벌 환경 기업·기구로의 진출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학업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주저함이 있더라도, 국제화 프로그램은 대학 생활 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

히 추천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현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먼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잊지 못할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수업 종료 후 다국적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런던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타워브리지(Tower Bridge) 및 런던탑(Tower of London) 일대를 탐방하며 촬영한 단체 사진입니다. 강의실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함께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고, 영국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과 후 현지 친구들과 함께 식사 및 친목 모임을 가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문화와 대학 생활, 일상적인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실전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국제화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파견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대학	리젠츠 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하계]학기	파견 기간	방학 / 6개월 / 1년
	수강과목 개요	과목명 <i>General English</i>		과목 설명(간략) <i>영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i>
체험수기	1. 파견대학 1) 파견대학 소개 리젠츠 대학교 (Regent' s University London) 런던 중심부 1존 왕립 공원인 리젠츠 파크 내 위치,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역과 다양한 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동이 편리함, 학교 크기는 작은 편이며 건물들이 내부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하기 쉬움 2) 파견절차 Zoom 미팅으로 온라인 OT를 참석한 후 어학연수 단체 카톡방에 전달된 공지 사항에 맞춰 서류와 비자신청, 항공권 구입 등을 준비하면 됨 3)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리젠츠 대학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레벨 테스트(문법, 어휘 등) 및 화상 인터뷰(스피킹)를 진행한 후 반 배정이 이루어짐. 기숙사는 교내에 있는 Reid Hall로 2인 1실로 운영됨. 담당자님이 배포하신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음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인터글로벌 리젠츠 한국대표부 김경숙(010-7770-6982) 2. 학업 1) 수강과목 소개 및 추천 강의 General English 수업은 주 15시간으로 진행됨(월~금 9:15~12:30, 11시부터 쉬는 시간 15분), 한 반의 15명 안팎의 다국적 소규모 분반 편성, 영어의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며 대부분 짝 활동이나 그룹 토의로 수업이 진행됨 2) 외국어 습득 정도 현지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듣다보니 귀가 점점 트이게 됨, 듣기 이해 속도가 향상되었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됨 3) 학습 방법 완전하고 정확한 문장을 생각한 후 내뱉으려고 하기보단 문법이나 발음이 틀리더라도 말한 뒤에 선생님께 틀린 점을 지도받는 게 도움이 되었음, 짝 활동이나 그룹 토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됨			

3. 생활

1) 출국 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파견 기간이 다가올수록 어학연수 카톡방에 공지사항들과 준비사항 체크파일이 올라오는데 하나씩 확인하고 체크하면 됨, 입국 심사를 위해 필요한 ETA 비자 링크도 학교에서 제공해줌, 수업을 위해 노트북이나 태블릿 지참을 설명받았지만 실제로는 책을 이용해 수업하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했음, 불안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무게가 덜 나가는 태블릿을 지참하는 것을 추천함.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한국 대비 체감 외식 물가가 매우 높음(1인 식사 £20~30, 서비스 차지 12.5% 별도),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의 Meal Deal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함

지하철이나 버스는 컨택리스 카드를 이용하였으며 일일 상한제가 적용됨, 파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Citymapper 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함

한국에서 출국 전 eSIM 구매를 했었는데 특정 거리들에서도 데이터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 구매를 추천함

아플 때 병원보다는 약사가 있는 Boots를 이용해 증상 설명하고 약을 받는 게 일반적임

3) 여가생활 및 체험활동 내용

평일 오후에는 런던 시내 관광이나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도시들을 당일치기로 다녀옴, 주말에는 근교 도시나 해외를 여행함, 학교에서 운영하는 Friday Trip에도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함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학비+기숙사	항공권	보험료(45일)	개인경비(근교여행, 교통비, 외부 식비 포함)
722만원	180만원	8만원	400만원

4. 참가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배운 점, 느낀 점 등)

단순한 어학 습득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배우게 됨, 스물토크 문화에 적응되어 처음보는 사람에게 낯가림이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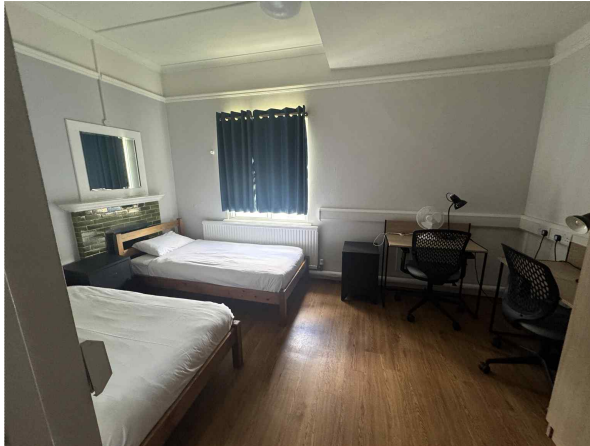
2) 향후 계획(학업, 진로 계획)

해외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위를 취득할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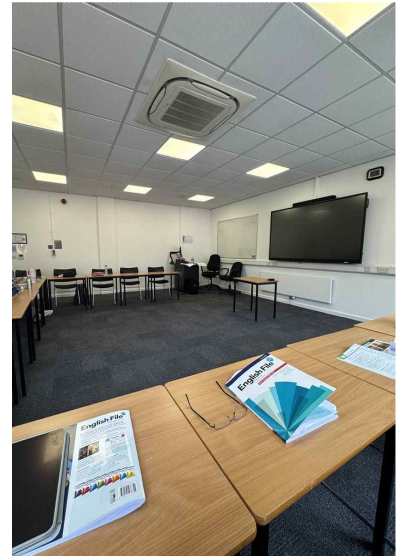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 번 부딪혀보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기숙사 내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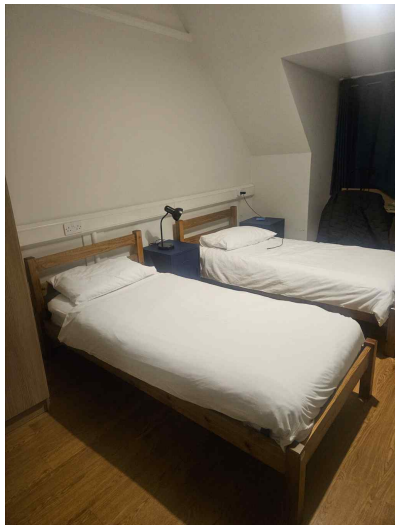
강의실 내부 사진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대학교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학교명	리젠트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1]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General English		일반 영어 쓰기, 말하기, 듣기 수업
1. 파견대학: Regent' s University London				
체험수기	1. 파견 대학 소개 Regent' s University London은 영국 런던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교로, 런던의 대표적인 왕립 공원인 Regent' s Park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다. 캠퍼스는 약 11에이커 규모의 사립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공원과 녹지가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비교적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3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국제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어학연수에서 참여한 Regent' s School of English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영어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런던의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원, 문화시설 등을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 학교 주변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교실 안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캠퍼스 내에 학생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어 수업 공간과 생활 공간이 가까웠으며, 캠퍼스에는 보안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 생활하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꼈다.			
	2. 파견 전 절차 파견 전에는 학교 및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전체적인 파견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받았다. 먼저 온라인 Zoom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영국 생활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출국 준비, 현지 생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고, 영국 입국에 필요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를 발급받았다. 또한 현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계정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안내받아 아이디를 생성하고 앱을 설치하였다. 출국 전에는 여권, 항공권, 보험, 숙소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사용할 휴대전화와 결제수단, 교통카드 등을 준비하였다. 특히 런던은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현지 교통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출국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전체적인 준비 과정에서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오리엔테이션과 담당자 안내를 따라 하나씩 준비하면서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영어 강의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별도의 복잡한 수강신청 과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비용을 납부하면 수강할 수 있는 형태였다. 나는 General English 과정을 선택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배정되는 반 중 B2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용 기숙사를 이용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파견을 갔기 때문에 출국 전에 담당 선생님께 친구와 같은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연락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숙소가 학교와 가까운 편이어서 수업을 듣기 편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 바로 런던 시내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이번 프로그램의 국내 담당자는 김경숙(Flora) 선생님이며, InterglobAl Education Group에서 영국 어학연수 및 현지 연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락처는 Office 02-352-6982, Mobile 010-7770-6982, Kakao ID 07107709682, E-mail interglobal@naver.com / rickkorea@naver.com이다.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나는 General English 과정을 수강했으며, B2 수준의 클래스에 배정되었다. General English는 영어의 기본적인 네 가지 영역인 읽기(Reading), 쓰기(Writing),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를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수업이었다. 실제 수업에서도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이 많았다. 공식 과정 역시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뿐만 아니라 문법, 어휘, 발음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수업 주제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였다. 처음에는 영어로 다루기에는 주제가 어렵다고 느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직접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보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활동이 많았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어학연수를 가기 전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B2 수준의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와 사용하는 영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하게 하고,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거나 답변하는 활동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 틀리더라도 일단 영어로 표현해보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학연수 후 영어 실력이 단기간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보려는 태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고, 영어로 대화할 때 머릿속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든 뒤 말하기보다 알고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되었다.

3. 학습 방법

이번 연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습 방법은 말하기 연습이었다. 듣기 수업도 도움이 되었지만,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니 사람마다 영어 발음과 억양이 조금씩 달라 처음에는 듣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직접 만들어 말하는 연습을 반복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나 선생님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따라 말해보는 방식으로 쉼도잉도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반복적으로 따라 말하다 보니 영어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것 자체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더라도 계속 말하는 것이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을 활용해 최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영국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행 준비물 외에도 장기간 생활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했던 물품은 보조배터리였다. 런던의 다양한 관광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며 사진과 영상을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할 일이 많았다. 또한 여름철에는 생각보다 더운 날씨가 있어 손선풍기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화장품, 마스크팩, 바디미스트 등의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가면 현지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구매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런던의 물가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특히 식비와 교통비, 관광 및 문화생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며 물건을 구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현지 물가에 적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환율이 약 1파운드당 1,900원 전후였으며, 시기에 따라 환율 변동이 있어 출국 전에 환율과 예상 생활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골통, 통신 등)

식사는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영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생활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며, 특히 현지에서 먹었던 과일이 맛있어서 자주 먹었다. 학교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편의성은 매우 좋았다. 학교 주변에서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었고, London Underground(지하철)를 이용하면 런던의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기도 편리했다. 또한 학교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있어 수업이 끝난 후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았다. 학교 내에서는 Wi-Fi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하면서 인터넷 사용에도 큰 불편함이 없었다. 무엇보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캠퍼스가 공원 안에 있고 출입이 관리되는 형태여서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꼈다. Regent's University London 역시 캠퍼스에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출입관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이번 어학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 하나는 수업 외 시간에 런던과 유럽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런던에서는 대영박물관, 빅벤, 런던아이, 다양한 미술관, 소호, 차이나타운, 캠든타운, 노팅힐, 킹스크로스역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런던에서 애프터눈티를 경험하고, 뮤지컬도 관람하였다. 특히 Wicked와 The Great Showman 등을 관람하면서 영국의 문화와 공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런던 근교로는 캠브리지와 브라이튼, 세븐시스터즈 등을 방문하였다. 캠브리지에서는 보트를 타며 영국의 대학도시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세븐시스터즈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학연수 중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일본인 친구와 친해져 함께 독일을 여행하기도 하였으며,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고 각자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여행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어학연수 기간 중에는 영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의 다른 국가도 여행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리츠 파리 등을 방문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유로타워, 영화박물관, 현지 성당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

항목	지출금액	세부 내용
프로그램 비용	약 467만원	어학연수 수업 및 프로그램 관련 비용
항공료	약 217만 원	한국 ↔ 영국 왕복 항공권
보험료	약 5만 7천 원	해외 체류 및 여행자보험
기숙사비	약 350만 원	약 4주간 현지 숙소
식비	약 340만 원	현지 식사 및 간식 등
통신비	약 4만 5천 원	현지 통신/데이터 사용
개인경비	별도 지출	교통비, 뮤지컬, 관광, 기념품, 개인 쇼핑 등
유럽 여행비	별도 지출	프랑스·독일 여행, 교통 및 관광 비용 등
총 지출	약 1,400만 원 내외	개인경비 및 여행경비에 따라 차이 발생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처음 어학연수를 신청했을 때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다. 비용도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평소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출국 전에는 '내가 외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영어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실제로 런던에 도착하고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생활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런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다. 서로 영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었고, 나만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런던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유럽 특유의 건축물과 도시 분위기, 여유로운 생활방식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나의 시야도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다는 점도 이번 프로그램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번 어학연수는 나에게 있어 진로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평소에도 해외여행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 영어권 국가에서 직접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 연수 이후에도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 평소에 영어 듣기 자료나 영어 영상을 접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영어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다.

향후에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영어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을 할 때에도 이번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진로적으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학업과 취업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국제적인 경험과 영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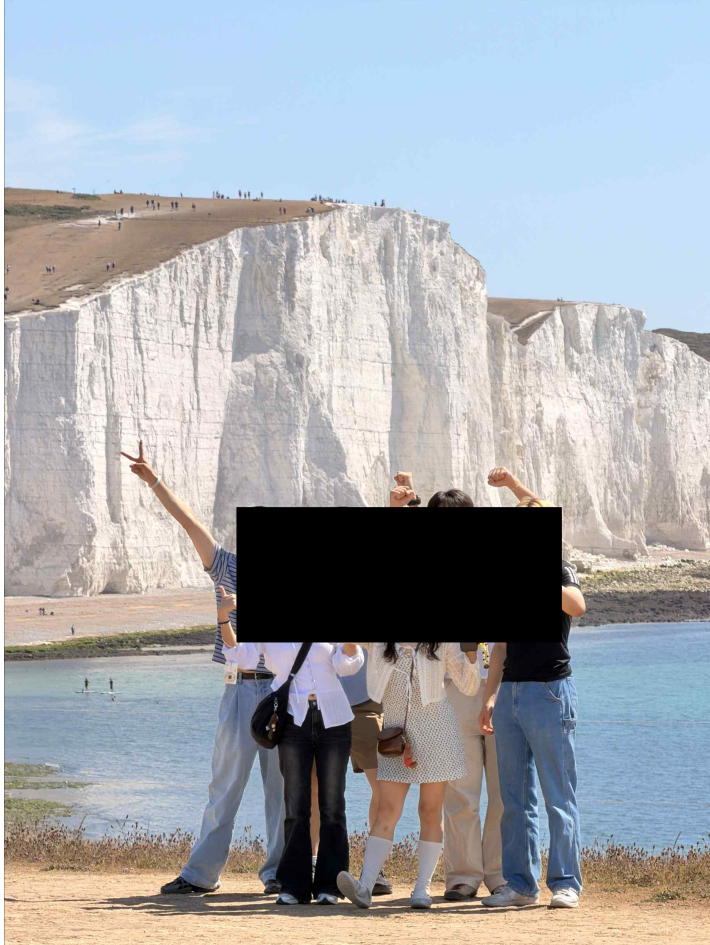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가능하다면 꼭 참여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출국 전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영어에 자신이 없었지만 막상 현지에 가보니 나만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모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톨리더라도 직접 말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만 사용해서 말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난다. 또한 가능하다면 친한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추천한다. 처음 해외에 나가는 경우 낯선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현지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사귀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인 친구끼리만 생활하기보다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관광지를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업만 듣고 기숙사에 있는 것보다 수업이 끝난 후 런던 곳곳을 직접 돌아다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공연, 근교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어학연수는 무엇보다 '영어를 못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영어는 현지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국 직접 부딪쳐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많았다.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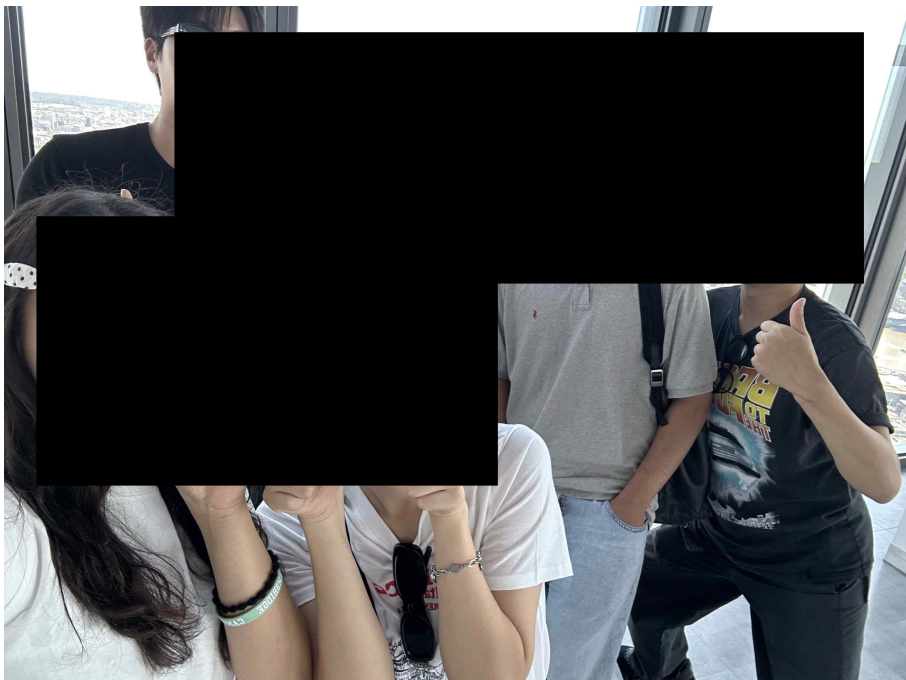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 중 하나는 해외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번 어학연수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지만, 프로그램 비용뿐만 아니라 항공료와 기숙사비, 식비, 현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컸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해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은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향후에는 학생들의 해외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항공료나 기숙사비 등 실질적으로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특히 해외 경험과 국제교류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문화적 이해와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접 느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고 이러한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1. 런던 랜드마크 세븐시스터즈 방문: 원조 멤버들과 함께 세븐시스터즈에 방문했습니다.



2. 호리존 22에 가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조멤버에 청푸(중국친구)와 함께



3. 새로운 일본인 친구 카린이 한국음식을 먹고싶어해서 소호에 위치한 한식당을 갔습니다.



4. 아름다운 빅벤 야경을 보며 이탈리아,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5. 짧았지만 많은 시간을 보낸 일본인 친구들과의 급식 식사



6. B2클래스 내 단짝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함께



7. 저희 B2클래스 친구들 감사했어요 ! 또 만나요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학교명	리젠츠 유니버시티 런던
	파견 시기	[2026]학년도 [1]학기	파견 기간	4주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General English		영어 회화 수업

체험수기

1.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리젠츠 유니버시티 런던(Regent's University London)은 영국 런던 1존의 대표적인 왕립 공원인 리젠츠 파크(Regent's Park) 내에 자리 잡은 사립 종합대학교입니다. 런던 도심의 뛰어난 접근성과 공원 내부의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라 국제적인 교류가 매우 활발합니다. 소규모 토론식 세미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교수진 및 다국적 동기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본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후, 리젠츠 대학교 한국 담당자의 세부적인 안내에 따라 파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록 절차를 차례대로 이행했습니다. 영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파견 전 온라인 지필 평가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어학 수준을 파악하는 사전 레벨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파견 전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과정 중 본인의 학습 목표에 맞춰 오전 제너럴 잉글리시(General English) 과정을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세부 반 편성은 국내에서 사전에 치른 레벨 테스트와 화상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를 통해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기숙사 또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신청서 작성 시 룸메이트 선호 사항을 기재할 수 있어 동행한 친구와의 동실 배정을 사전 요청하여 원하는 환경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소속 및 부서: 리젠츠 대학교 런던 (Regent's University London) / Interglobal Education Group 한국대표부
담당자: 김경숙
연락처: 02-352-6982 / 010-7770-6982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다시 정리하고, 매일 다른 주제로 짝을 지어 대화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참여형 수업이었습니다.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계속 말을 꺼내야 하는 분위기라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면서 실생활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영어로 말할 때의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문법이 틀릴까 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일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편하게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귀도 많이 트이고 외국인과 일상적인 소통을 나누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3. 학습 방법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파트너 활동이나 대화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과제도 밀리지 않고 꼼꼼히 해갔습니다. 또 수업에서 새로 배운 표현이나 문장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바로바로 써먹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런던의 현지 물가는 외식비와 장바구니 물가 모두 체감상 매우 비싼 편이라 평소 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나 컨택리스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혜택이 있는 해외 결제 가능 카드는 필수입니다. 또한 여름철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만 현지 기숙사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용 선풍기나 방에서 쓸 작은 탁상용 선풍기를 챙겨간 것이 생활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교통의 경우 주로 지하철(언더그라운드)을 이용했는데, 엘리자베스 라인처럼 비교적 최근에 생긴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여름철 이동 시 매우 덥고 답답했습니다. 통신 역시 언더그라운드 깊숙이 들어가거나 번화가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데이터가 거의 터지지 않고 먹통이 되는 일이 잦아 지도나 티켓을 미리 오프라인으로 캡처하거나 애플 지갑에 저장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단기 체류라 현지 의료 기관이나 은행을 직접 이용할 일은 없었지만 비상약 등은 출국 전 한국에서 미리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수업이 끝난 후나 주말에는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런던 곳곳의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영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 같은 런던의 주요 국립 박물관들은 대부분 입장료가 무료라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뮤지컬 역시 당일 할인 예매(todaytix)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가장 저렴한 가격은 약 15파운드 정도)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항목		금액(원)
항공료		2,161,100
숙박료(기숙사) + 수업료		7,214,011
현지 교통비		296,400
개인 경비	통신비	약 50,000
	여행비용(프랑스,독일)	약 900,000
	식비	약 1,500,000
	문화생활 및 기념품	약 650,000
합계		약 12,771,511
지원금		2,000,000
합계		약 10,771,511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매일 어울리며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졌고,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직접 부딪히며 해본 수많은 경험들이 대학 생활 중 잊지 못할 큰 자산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번 파견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향상된 어학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기른 적극성과 적응력을 잘 살려서 희망하는 진로 분야로의 취업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런던은 물가가 비싼 편이라 여유 자금이 넉넉할수록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 집니다. 주변에 감기나 컨디션 난조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으니 평소 챙겨 먹는 상비약은 한국에서 넉넉히 준비해 가는 것을 권합니다. 날씨는 걱정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비가 자주 오지 않고 한 달 체류 중 하루 정도만 내렸습니다. 그래도 번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 작은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이어도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할 때가 있어 가벼운 긴팔 옷이 유용하며, 예쁜 옷 위주로만 챙겼다가 수업 갈 때 입을 편한 옷이 부족해 현지에서 따로 구매했으니 등교용 편한 옷도 충분히 챙겨가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카드는 남은 잔액이 환불되지 않으므로 퇴실 전까지 알뜰하게 다 사용하고, 학교 카페테리아 메뉴 중 초콜릿 헤이즐넛 케이크와 잉글리시 머핀이 정말 맛있으니 꼭 한 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4. 기타사항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첫 번째 주, A1 클래스 담당 선생님 및 반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



두 번째~네번째 주, A2 클래스 선생님 및 반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



A2 클래스 강의실 내부 및 수업 환경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빅벤 야경 구경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한식당(WOOJUNG)



수업 후 기숙사 식당(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참가 프로그램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6.07.27. ~ 2026.08.21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선발 및 서류 제출 : 대학 내 국제교류처 모집 공고 확인후 지원서, 성적 증명서, 어학 성적표를 제출하여 최종 파견 대상자로 선발된다 그리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여 현지 안전 수칙과 준비물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다 그리고 난 후 출국 및 행정 준비를 하는데 먼저 ETA 절차를 진행하고 해외 유학생 보험가입, 왕복 항공권 결제 4주간 기숙사, 홈스테이를 확정한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연수 기관의 교육과정은 오전 일반영어 과정과 오후 심화 과정으로 구분 되어 진행되었다. 나는 목표 점수인 IELTS 6.0을 확보하기 위해 오후 수업으로 IELTS를 별도 신청하여 수강하였고 오전 수업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지 교사의 지도 아래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들과 특정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Speaking and Writing 영역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프리토킹 과정이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국적 학생들과의 교류도 나는 친화력이 좋아서 일본,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매일 어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그리고 매일 방과 후 및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런던 시내의 주요 명소, 박물관, 미술관 및 역사적 공간을 방문하여 현지 사회와 문화를 다각도로 체험했다. 3. 참가 성과 영어 소통 능력 및 자신감을 확보할수있다 외국인 학생들과 매일 외부 활동을 함께하고 토론에 참가하여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수있었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프로그램 비용 - 4,000,000 항공료 1,900,000 숙박비용 4,000,000 식비 2,500,000 개인 경비 2,000,000 보험료 50,000 합계 - 14,500,000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4주간의 런던연수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폭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친구들과 매일 현지 명소를 탐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언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임을 실감하였다 오후 IELTS 수업에서의 활발한 프리토킹과 토론 경험은 실전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렸던 경험은 향후 학업 및 개인적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IELTS 목표 점수 취득: 연수 동안 다진 실전 스피킹 라이팅 감각을 바탕으로 귀국 후 집중 학습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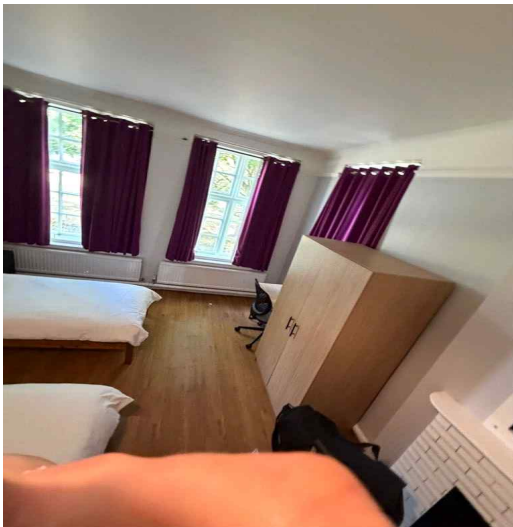
IELTS 6.0 점수를 조기에 공식 취득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재도전 할것이다 본 연수를 통해 얻은 어학 능력과 자신감을 발판 삼아 향후 다른 국가 및 대학의 추가 파견 연수 프로그램에 도전할 계획이다.

2) 진로계획

해외 연계 직무 및 글로벌 기업 진출 준비: 향후 해외 진출 기업, 다국적 기업, 또는 국제 통상·글로벌 업 등 어학 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이 핵심인 분야로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직무 자격증 취득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수업 측면에선 토론 및 프리토킹 수업 시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적 오류에 집착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가 실력 향상의 핵심이다. 그리고 런던 현지 물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식비, 교통비, 문화체험비 등에 대한 사전에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필수적이다.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학교명	Regent' s University London
	파견 시기	[2026]학년도 [하계]학기	파견 기간	6개월 / 1년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General English		오전 3시간 주 15시간 수업
체험수기	I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Regent' s University London은 는 영국 런던의 Regent' s Park 내에 위치한 학교이며, 런던 시내 Zone 1에 위치해 있어 유명 관광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2. 파견 전 절차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해외파견 연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강과목과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General English 과정과 교내 기숙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간단한 객관식 지문 테스트와 온라인 미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보험, 왕복항공권 등을 구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여행자보험 견적서를 보내주시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삼성화재에서 가입했습니다. 항공권은 대한항공에서 인천발 직항 항공권으로 예매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파견 전 신청한 수강과목과 온라인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이 배정됩니다. 교내 기숙사는 2인 1실이며, 룸메이트는 랜덤 배정되어 저는 조선대에서 같이 파견온 분과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리젠츠 대학교 한국 대표부 김경숙 담당자님 010-7770-6982				
II .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General English는 월-금 9:15-12:30(11:00-11:15 쉬는시간)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오후에 개인적으로 런던 관광을 하고 싶어 오전 수업만 하는 General English를 신청했습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English File 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말하기 듣기 문법 등을 배웠습니다. 일방적인 지식 주입보다는 토론식으로 스스로의 의견이나 경험을 말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한 반에는 대략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최단 일주일에서 최장 4개월까지 수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말하는 능력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었다기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다른 영어 발음과 억양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국적 학생들의 영어를 알아듣는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악센트를 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 영어로 직접 말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틀리더라도 먼저 말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III. 생활

1. 입국 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외식을 하면 한 끼에 한화로 약 3만원~4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팁 문화가 있어 다소 비싼 편입니다. 또한 소호에 한인마트가 몇몇 있고 가격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므로(한국에 비해 약 1.5배) 굳이 가져오실 필요 없이 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영국 내에서는 현금 인출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트래블카드로만 사용해도 충분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모두 컨택리스 기능이 있는 트래블카드로 이용가능합니다. 지하철 요금이 기본 3파운드이고 버스 요금은 1.75파운드(1시간 내 환승 가능)인데,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요금에 더 할증이 붙기 때문에 돈을 아끼시려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의 경우 저는 로밍을 해갔습니다(SKT 65GB 3만원). 하지만 전화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교내에서는 와이파이가 있으므로 데이터 이심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영국이 티 문화로 유명하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함께 애프터눈 티를 경험해봤습니다. 가격은 한화 약 8만원으로 만만치 않지만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영국		여행	
합	11,536,471	합	1,918,946
항공권(캐리어 1pc 추가)	2,560,500	파리 항공권	278,986
여행자보험	72,790	파리 숙소	310,228
등록금	7,214,038	바르셀로나 항공권	218,761
카드값	1,689,143	바르셀로나 숙소	355,145
		카드값	755,826

위 표는 한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주변국(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여행을 다녀와서 다소 비용이 많이 든 편이라 생각합니다. 리젠트 대학교를 신청하신다면 장학금 200만원을 제하고 넉넉히 천만 원 전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해외에서 4주라는 기간 동안 지내면서 평소에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어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실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실제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영어 실력이 단기간에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오기보다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온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해외에서 한 달간 직접 생활해 보는 경험을 목적으로 참가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기타사항

1달 생활에 캐리어 한 개로는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위탁 수하물 1개를 더 추가해서 캐리어 두 개를 했는데 좋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교내 식당과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420파운드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므로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돈이 남아 마지막에 꿀이나 초콜릿들을 많이 사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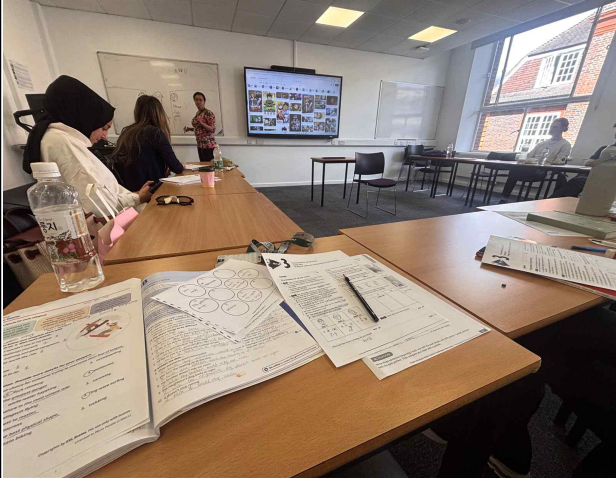
준비 물품으로 노트북이 쓰여있었는데, 실제로 수업 중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검색으로 충분합니다. 파견 기간 중에 수강신청이 겹쳐서 그 때 한 번 사용했습니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마지막 날 체크아웃 직전 기숙사 사진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체크아웃이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체크아웃 후 짐을 맡겨둘 수 있습니다.



조별 활동 중의 사진입니다. 제가 있던 반은 주로 두 세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조별 활동을 자주 했습니다.



리젠트파크 쪽에 베이커 스트리트로 이어지는 쪽문이 있습니다. 카드키로 찍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오후 8시 반이면 닫혀서 큰 길로 돌아와야 했었는데, 더 오래걸립니다. 일찍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 넘다가 관리자에게 걸려서 경고 받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영국	파견 학교명	리젠츠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General English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수업	

체험수기

I.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런던 중심의 Baker Street 역에서 도보로 5분 위치에 있는 Regent's University London입니다. 학교는 리젠츠 공원 내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넓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각 대학에서 파견된 학생들이 오고, 다른 나라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반 배정을 위해 간단한 온라인 테스트와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반은 CEFR 기준에 의거해 A1부터 가장 높은 반인 C2까지로 나뉩니다. 이외에는 영국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비자인 ETA를 개별적으로 꼭 발급해야 합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Course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오전 수업(약 3시간)은 모든 강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제가 선택한 General English는 오후 수업을 따로 수강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오후에는 IELTS, Business English, Extensive English, Sightseeing 등 다양한 수업이 존재합니다. 파견 지원 과정에서 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교내 기숙사인 Reid Hall은 기본적으로 2인실이고, 룸메이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호실은 기숙사 체크인 시 배정받는데, 호실 변경을 희망하면 리셉션 데스크에 문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실 내에는 침대, 책상과 의자, 옷장, 침대 옆 작은 탁상, 보일러가 존재합니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고, 2층에 세탁기 및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있고, 공용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김경숙 / 리젠츠대학교 한국대표부 / 010-7770-6982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오후 시간을 비워 두고 관광이나 휴식을 위해 자유롭게 운용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General English Course를 선택했으나, 아이엘츠 시험을 준비하거나 영어 실력 향상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 등 추가적인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오후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이외에도 수요일 오후 Conversation club, 금요일 오후 Sightseeing 등 매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금요일 오후 시간대는 모든 course에서 공통적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저는 영어를 이미 능통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극적인 실력 향상을 경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인 실제 원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억양의 영어가 가장 익숙한 반면 리젠츠대학교에서는 영국 억양을 중심으로 전세계 학생들의 억양을 접할 수 있다 보니 듣기 능력 경험치를 쌓는 데 유용합니다.

3. 학습 방법

반별 수업 난이도와 과제량, 수업 방식 등은 교사마다 차이가 큼니다. 저희 반의 경우 주된 교재가 있었으나 수업 중 절반 정도만 교재를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추가 유인물이나 간단한 게임, 기타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대체로 과제는 없었고, 수업 중 배운 내용이나 새롭게 알게 된 표현 등을 자율적으로 본인의 학습노트에 기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필요 물품>

여권, 운동화, 실내화/욕실화, 상하의, 외투, 양말, 속옷, 전자기기, 충전기, 보조배터리, 필기도구 및 문구류, 노트, 세면용품, 텀블러, 우양산, 드라이기, 상비약, 해외결제카드, 수건, 멀티탭, 변압기, 세탁세제, 선풍기 등

<현지 물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일, 채소 등)은 저렴한 편이고, 외식 물가는 높습니다. 런던 중심부이기 때문에 10파운드 밑으로 식사를 해결할 만한 곳은 대형 마트들의 밀딜(Meal-deal) 제외하고 찾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은 편도 3파운드, 버스는 1.75파운드 수준이고, 지하철과 버스 사이에는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학생증에 기본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카페와 간식 코너도 꾸준히 이용했음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식당은 조식(메뉴 고정), 중식과 석식(매일 메뉴 변동)이고 메뉴와 이용가능 시간대 등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음료와 디저트,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카페가 있고, 에너지바나 감자칩 등 간단한 간식들도 학생증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현금이 일절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할 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솔트래블 국제학생증 이용했고, 유럽은 학생 혜택이 많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서 국제학생증 무료 발급 행사를 진행할 때를 노려 발급해 두면 좋습니다.

교통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비싼 편입니다. 공유자전거 역시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 이하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런던이 매우 더운 편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앱을 깔아서 가능하다면 Air-conditioning 옵션을 선택해 해당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최근 개통된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영국 대중교통에는 냉방 서비스가 없습니다.

한 달짜리 eSim을 구매해 이용했습니다. 오래된 지하철 노선들의 경우 데이터가 아예 터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 경로를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저는 주로 박물관과 미술관, 공원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입장료가 없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많고, 학교가 위치한 리젠츠 공원 역시 넓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이외에는 뮤지컬 공연과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펍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펍을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외에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을 했고, 근교 도시인 Watford에서 Warner Bros. Studio Tour에 다녀왔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항목	내역	원화 (예상)
연수비	수업료+기숙사비+식비 (1차 계약금)	4,464,875
	수업료+기숙사비+식비 (2차 납부금)	2,749,163
	학교 지원금	-2,000,000
연수비 총계		5,214,038
항공	아시아나항공	2,130,000
런던 교통비		383,054
교통비 총계		2,513,054
식비 총계		162,247
물품	기념품 등 물품구매, 기숙사 내 세탁 등	164,192
	여행자보험(7/22~8/23)	16,150
물품 총계		180,342
관광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121,095
	ETA 비자	42,381
	런던 관광비	135,254
관광비 총계		298,730
총계		8,368,411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아시아 밖 국가에는 처음 가 본 것인데, 해당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큰 짐을 덜어 준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시간을 비워 두고 자유롭게 런던을 관광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종일 수업만 해도 좋았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수업 역시 즐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나잇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전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들이 다른 어떤 화려한 관광보다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막연히 영어권 국가 학생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에 다녀오며 제 영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올 수 있어 기쁩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나,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고 다시 참가할 것 같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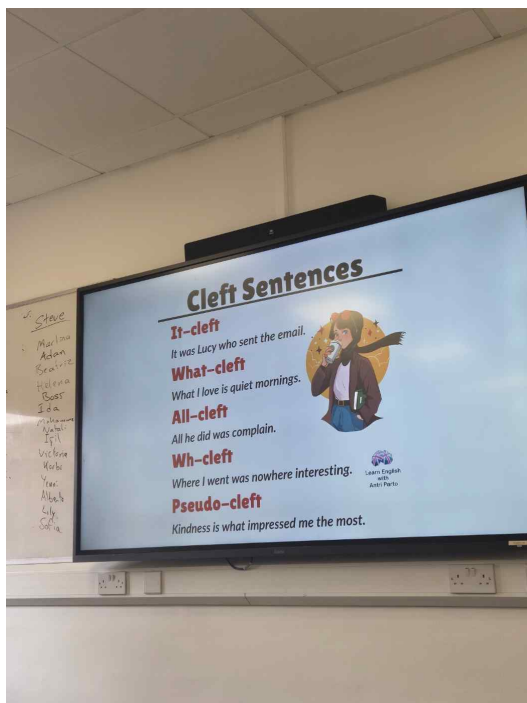
리젠츠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 중에는 모국어와 영어를 제외하고 제3외국어, 심지어 제4외국어까지 구사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자극을 받고, 영어 역시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문화와 소통에 국경이 없어진 시대에는 언어가 정말 큰 무기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저도 정말 내향적인 편인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런던에 머무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고, 수업 시간에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영어를 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살면서 한 달을 통째로 런던에 머물며 전 세계 학생들과 말을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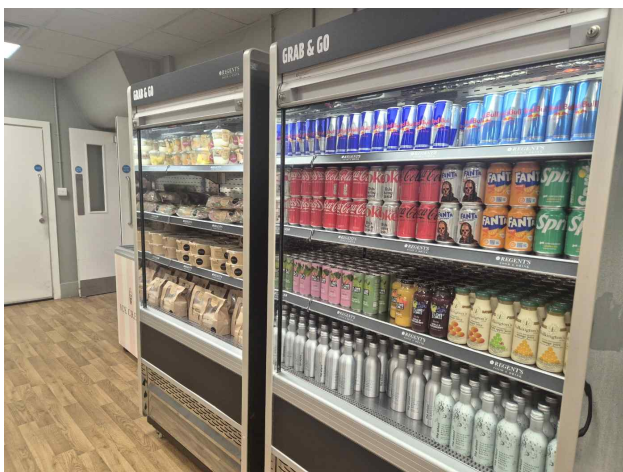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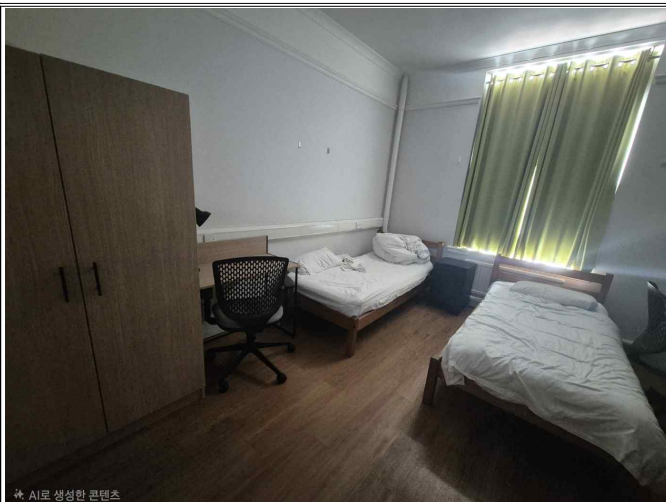
강의실 내에서 유일하게 찍어둔 사진인지라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첨부합니다.

수업 주제는 매주 조금씩 바뀌는데, 저는 음식/미디어/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제를 학습했습니다. 사진 속 PPT는 미디어 단원 교재의 읽기 본문 중 문법 개념인 Cleft sentences에 대해 배웠을 때입니다.

강의실 내부에는 책상이 U자를 그리며 배열되어 있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식당 내부에 있는 샌드위치/샐러드/음료 코너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증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AI로 생성한 콘텐츠

기숙사 내부입니다. 남녀 구분은 딱히 되어 있지 않고, G층부터 3층까지 있습니다.